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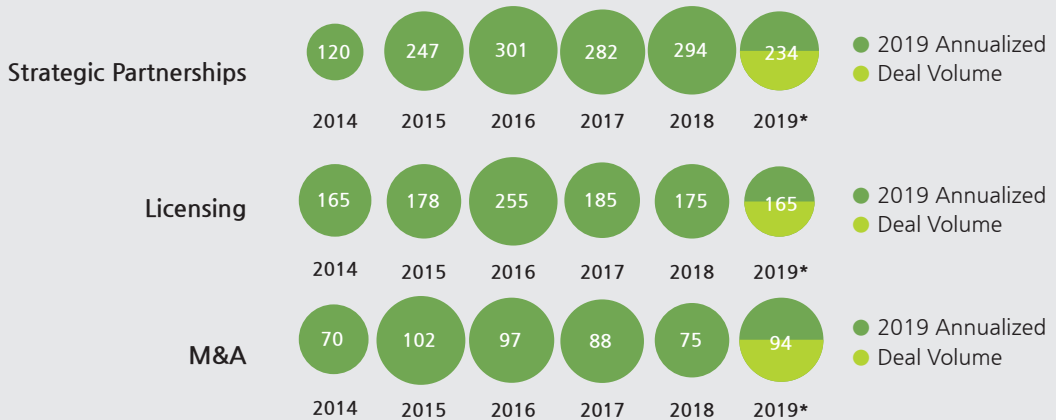
글로벌 제약기업 Deal 동향

임지윤 주임 정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유정 과장 Life Science Practice, Deloitte

+ 개요

기술 거래는 제약 업계에서 이익 창출을 위한 핵심이기 때문에 글로벌제약사의 기술 거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그림 1] 최근 5년간 거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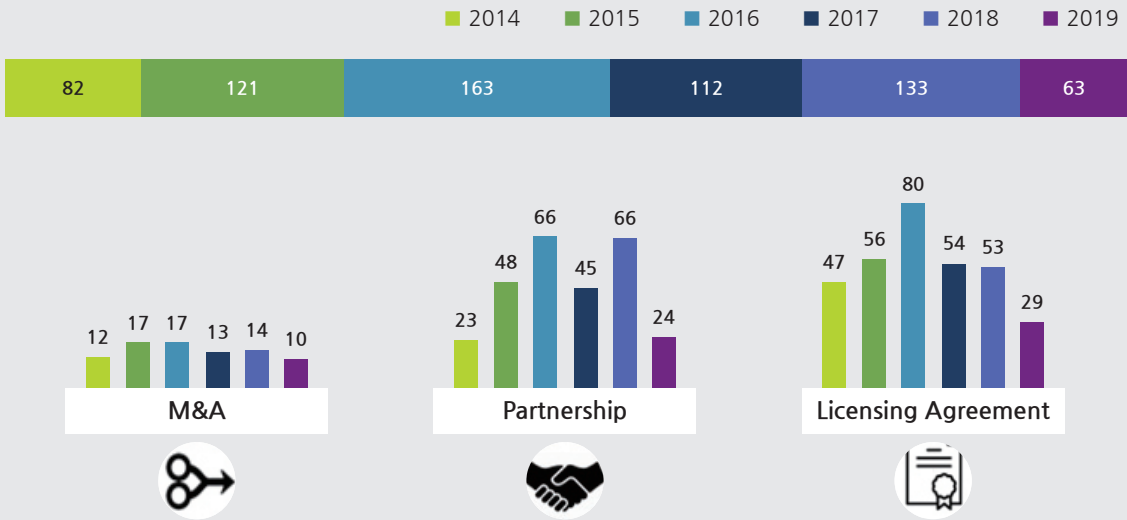
출처: GlobalData, Deal-Making Trends in Pharma(2019)

전세계 제약업계의 기술거래는 매우 활발하여 최근 5년간 2,882개의 거래가 성사되었고 그 규모는 약 1,272조원(\$1,068.8B)에 달함. 그 중 다케다 제약회사가 샤이어(Shire)를 인수하며 약 1,000조원 (\$855.4B)의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이었으며 2019년도에는 Bristol-Myers Squibb (BMS)의 Celgene 인수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계약이었음. 제약사들 간의 이러한 대규모 거래는 점점 흔해지고 있으며 이는 M&A가 주주들이 경제적 수익에 대한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 타 기업의 강점을 활용하는 새로운 전략임을 나타내고 있음.

+ 주요 영역별 거래 현황

1. 유전자 치료제 (Gene Therapy)

[그림 2] 최근 5년간 유전자 치료제 분야 deal 현황



출처: GlobalData, Deal-Making Trends in Pharma(2019)

(Partnership) 유전자 치료제의 파트너십 체결의 규모와 가치는 해마다 상승하고 있음. 2017년도에 파트너십 체결의 가치가 2016년도 기준 \$262M(약3,150억원)에서 \$68M(약 817억원)으로 74% 하락하였는데 2018년도에 \$367M(약4천4백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가장 높은 금액을 달성하였음. 최근 5년간 2014년도부터 2019년까지 유전자 치료제 관련 파트너십 체결은 총 272건이었으며 그 규모는 \$15.4B(약18조원)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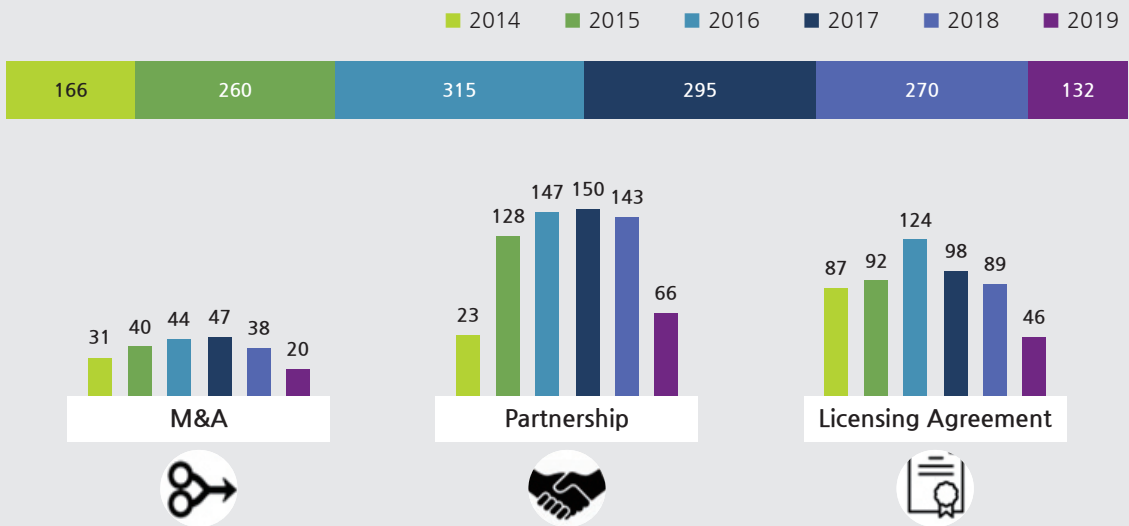
(Licensing) 2014년도부터 2019년까지의 유전자 치료제 라이선싱 계약 체결은 총 319건이 있었으며 총 규모는 \$22.8B(약27조원)이었음. 2016년도에는 기술 분야 중 유전자 치료 분야의 라이선싱 계약이 가장 많았으며 2018년도에는 노바티스와 스파크 테라퓨틱스가 성과 기반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는 등 최근까지도 주요 라이선싱 계약이 체결됨. 계약이 성사된 유전자 치료제 적응증은 주로 종양학, CNS, 유전학, 안질환에 관련된 적응증임.

(M&A) 최근 5년간 유전자치료제의 M&A는 총 83건 성사되었으며 계약의 규모와 가치 또한 높게 유지됨. 평균 계약의 규모가 2016년도에 \$222M(약 2천6백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017년도에 \$2.5B(약3조62억원), 2018년도에는 \$2B(약2조4천억원)으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음. 2019년도 초반에 10건의 M&A가 이루어졌고 2019년 동안 약 20건의 M&A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는데 이는 지난 5년간의 거래 건수보다 높은 수치임. 특히, 안질환과 관련된 M&A는 2017년도에는 1건 밖에 없었으나 2018년도에는 5건이 발생하였고 또 2019년도의 M&A 10건 중 5건이 안과 관련 적응증이었던 등 안질환과 관련된 유전자 치료의 M&A 건수가 증가함.

2. 면역 항암제 (Immuno-Oncology)

[그림 3] 최근 5년간의 면역 항암 분야 deal 현황



출처: GlobalData, Deal-Making Trends in Pharma(2019)

(Partnership) 면역종양학의 파트너십 체결 평균 수치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25% 상승함. 2014년부터 5년간 면역종양학 관련 파트너십 체결은 총 682건, 계약 규모는 \$15.4B(약 18조5천억원)이었음. 암 적응증은 면역종양학 부문의 파트너링 계약에서 상위 3개중 2개를 차지할 만큼 인기 있는 분야이고 면역 종양 약물은 최근 몇 년간 가장 많이 팔린 약물 중에 하나로서 기업들은 종양을 억제하기 위한 병용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한 파트너를 모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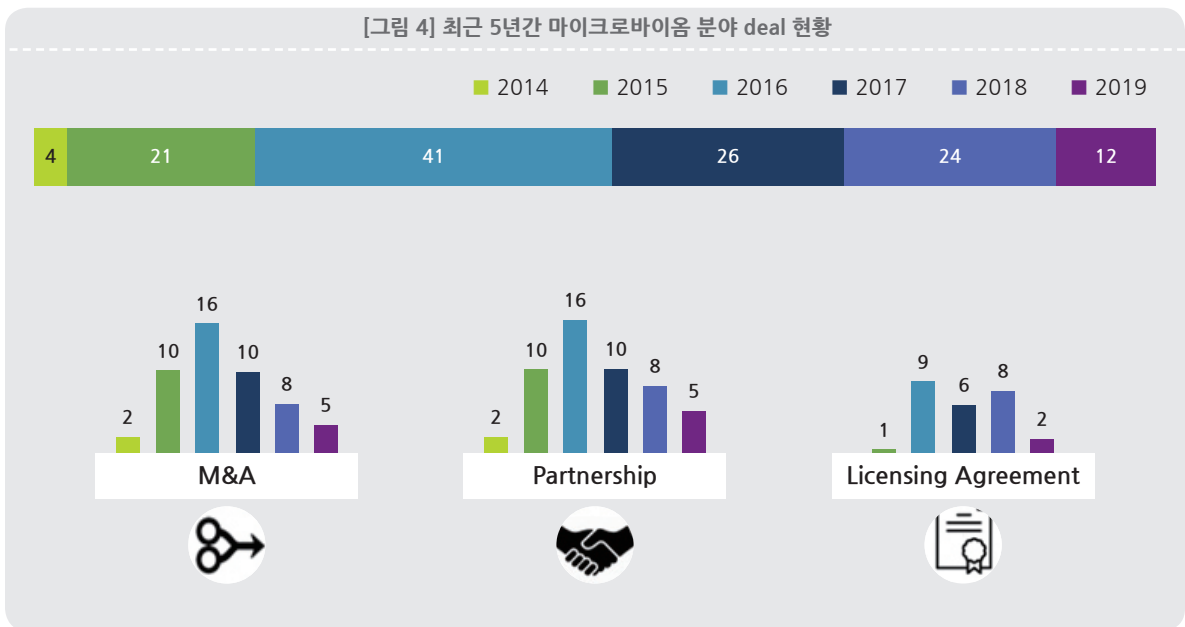
(Licensing) 2014년부터 면역종양학의 라이선스 계약은 총 536건, 규모는 \$78.2B(약94조 355억원)이었음. 지난 5년간 면역종양학 분야의 라이선싱 가치는 높게 유지되다가 경미하게

감소함. 라이선싱 부문에서 면역종양학은 가장 높은 가치를 이끌어냄. 또한,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아시아 시장도 증가하는 추세임. 2018년도의 대표적인 라이선싱 사례는 알로젠 테라퓨틱스가 동종 이형 U CART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갖는 것으로 셀렉티스와 \$2.8B(약3조 3,670억원)의 규모로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한 것임.

(M&A) 2014년부터 면역종양학의 M&A는 220건 성사되었음. 평균 거래 규모는 미미하게 감소했으나 면역 종양 분야는 타 기술 분야 대비 가장 큰 규모의 M&A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제약기업은 병용 투여 가능한 약물을 찾고 있어 특허가 만료되는 약물이나 제네릭이 필요한 약물의 M&A를 통해 그 이익을 확대하고자 함.

3. 마이크로바이옴 (Microbiome)

[그림 4] 최근 5년간 마이크로바이옴 분야 deal 현황



출처: GlobalData, Deal-Making Trends in Pharma(2019)

(Partnership)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의 규모는 매우 낮음. 마이크로바이옴 분야는 아직 진화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규모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짐. 2014년부터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파트너십은 51건이 체결되었고 그 규모는 \$110M(약1,322억원) 이었음. 마이크로바이옴을 타겟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바이오텍 회사가 증가함에 따라 마이크로바이옴 약물 후보군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J&J와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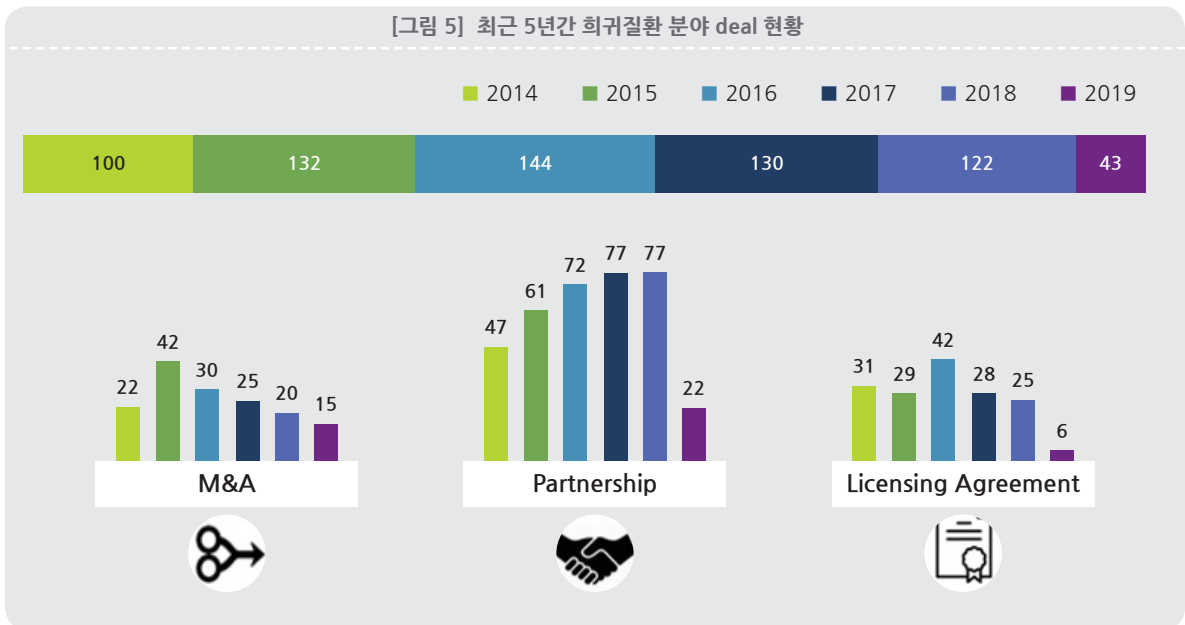
은 대형 제약회사가 바이오텍이나 연구소와 협력하여 면역학적인 마이크로바이옴 타겟 치료제의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Licensing) 2014년부터 현재까지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라이선스 계약은 26건이 있었으며 계약 규모는 \$5.8B(약6조9천억원)이었음. 마이크로바이옴 분야 치료법 개발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채택한 대형기업들이 있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은 크게 확대되고 있음. 2017년도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의 평균 라이선스 계약 규모가 \$965M(약1조1,604억원)이 되는 등 기술의 가치가 높게 책정되고 있음.

(M&A) 100개가 넘는 회사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현재까지 22건의 M&A가 있었음. 페링(Ferring) 제약사의 감염성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리바이오틱스(Rebiotix) 인수와 다케다의 사이어 인수(마이크로바이옴 연구 포함)가 있었음. 전반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그 성장속도는 매우 빠른 편임.

4. 희귀의약품 (Orphan Drugs)

[그림 5] 최근 5년간 희귀질환 분야 deal 현황



출처: GlobalData, Deal-Making Trends in Pharma(2019)

(Partnering) 희귀의약품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356건의 파트너십 체결이 있었으며 거

래 규모는 \$30B(약 36조 750억원)이었음. 파트너십 체결 규모가 2015년도에 상승하였다가 2019년도에는 규모와 가치가 하락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은 희귀 질환을 연구 개발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특허의 어려움과 기존 의약품 개발이 더욱 어려워지고 비싸짐에 따라 희귀의약품 개발에 전념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따라서 희귀 의약품과 관련된 전략적 파트너십의 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Licensing) 2014년 이래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에 대해 \$15.2B(약 18조 2,780억원) 규모의 161건 라이선스 계약이 있었음. 지난 5년동안 잠재적으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약물의 라이선싱 계약의 가치와 규모는 계속 변동이 있었으며 2016년도의 라이선싱 규모가 가장 큰 규모였음. 2019년 초에는 희귀의약품 관련 라이선싱 계약의 가치가 높게 책정되었고 이는 희귀의약품이 제약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

(M&A)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희귀의약품과 관련한 인수합병은 154건이 있었음. 희귀 질환의 개발은 가장 수익성이 좋은 치료 분야 중 하나이며, 특히나 M&A와 같은 거래를 생각한다면 더욱 수익성이 좋은 분야임. 2015년에는 희귀의약품과 관련된 거래가 42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함. 2017년과 2018년에는 희귀질환 의약품 및 적응증에 관한 승인을 받아 앞으로도 인수합병 계약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함.

< 참고자료 >

1. GlobalData, Deal-Making Trends in Pharma(2019)

Writer

임지윤 정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주임
전화: 02-6677-7661
e-mail: jyrhim@jjpat.com

Reviewer

서유정 Life Science Practice, Deloitte, 과장

BIO ECONOMY BRIEF

발행 : 2020년 03월 | 발행인 : 서정선 | 발행처 :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삼평동, 코리아바이오파크) C동 1층, www.koreabio.or.kr
* 관련 문의 :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e-mail : Koreabio1@koreabio.org



Innovating Data Into Strategy & Business



9 772508 681005 77
ISSN 2508-6812